

황교안 대표 “망언 의원 징계 빠른 시간내에 처리”

빛받치는 반대에도 “광주 가겠다”
“국민 의견 반영해 당 입장 정할 것”
민주 “특별법 등 약속이라도 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빈손’으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황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 제명 문제와 관련, “가급적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명 의원의 제명 의결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원내에서 여러 국민들의 뜻을 감안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고소가 된 분도 있어서 수사 중인 과정에서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 여러 의견을 잘 감안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며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도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또 협의 중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 조금 더 쟁거노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이 지난 14일 진행한 ‘문재인 선거법-공수처법·민생파탄 저지 토론회’에 5·18 망언 의원을 옹호하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초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5·18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 건드리는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며 “5·18에 대한 온당한 평가,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의사도 거듭 확인했다. 황

대표는 “국가 기념일 아닌가, 그리고 국가 기념일에 준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땅히 제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질타가 있으면 듣겠다. 피하는 것보다 가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투쟁 대정정 일환으로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당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징계가 마무리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저희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종명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시기 및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데다 극우 단체들의 5·18 집회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아직도 5·18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先) 5·18 망언 의원 징계, 후(後) 광주 방문’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망언 의원 내부 징계절차 완료, 국회 징계 절차 마무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세 가지를 하고 나서 광주를 찾으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이라도 국회 정상화를 해 5·18 역사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라”며 “황교안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이라도 이 문제를 매듭지어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적극적 재정 요구”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라 곳곳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

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직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성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국회 윤리특위 18일 이전 5·18 망언 의원 징계 불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밤 국회에서 간사화동을 하고 자문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8일 이전 망언 의원들의 징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밤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정하겠다”며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측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다

른 당들이 절차·법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윤리심사자문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 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고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회의 불참에 따라 공정을 거듭해왔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가 최종 2개월 내 징계 수위를 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서울시의회 5·18묘지 참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16일 광주를 찾아 국민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서울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옛 전남도청을 찾아 도청 복원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오월 어머니들을 격려했다.

이용섭 시장 “광주 시내면세점 허가, 관광산업 단비”

간부회의서 철저한 준비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면세점 특히 부여는 광주시 관광산업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광주 시내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전환점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간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에 시내면세점 대기업 특허와 세계수영대회 선수촌내 한시적 특허를 부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가장 큰 고려 요인이 바로 쇼핑이었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광주는 물론 호남권에는 시내면세점이 하나도 없어 관광객 유치 및 체류관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4월 개최된 수영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 때도 외국인 1만 여명이 광주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시내 면세점 유치를 계기로 광주관광 전담기구 설립, 광주만의 관광상품 발굴에도 적극 나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뒤 “담당부서에서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적정 입점장소 선정, 우수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 참여, 시내면세점 설치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 시장은 “광주의 5·18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의의 역사다”며 “올해 5·18이 포용과 화해의 오월정신을 기리고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극우성향의 단체들이 금남로와 5·18 민주묘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도 없었던 1980년 오월항쟁의 그때처럼 흔들리지 말고, 절제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뷰티풀 코란도 탄생

BLAZE COCKPIT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 9인치 AVN | 인피니티 무드램프 | LED 리어컴비 램프

VIEWTIFUL KORANDO

코란도 2WD 수동 6단: 복합 15.2km/l [도심주행 14.5km/l, 고속도로 16.0km/l] | 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525kg | CO2배출량: 123g/km | 2등급
2WD 자동 6단: 복합 14.1km/l [도심주행 13.2km/l, 고속도로 15.5km/l]
1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535kg | CO2배출량: 134g/km | 2등급 | AWD 자동 6단: 복합 13.3km/l [도심주행 12.3km/l, 고속도로 14.9km/l] | 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640kg | CO2배출량: 143g/km | 3등급
▶본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심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바랍니다.

광주점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윤암 573-8900
전남권 (061)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광양 791-0071	나주혁신 331-1500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암 473-3456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서광양 761-8900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	542-5888	합평 324-3800	여수구룡 642-1400	구례 782-9300			